

우리나라 金屬工學界의 巨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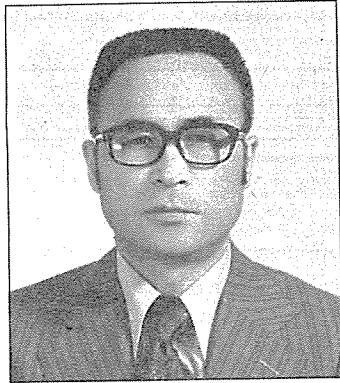
千炳斗 박사는 1926년 10월 충남 부여군에서 출생, 한편생을 대학, 연구소, 산업체에서 불철주야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이끌어 나가는데 보내셨다.

1952년 서울대공대화공과를 졸업, 이어서 동대학원을 거친 후 화공과의 후진양성에 1961년까지 전념하였으며, 그해에 미국유학을 떠나 1965년에 UTAH대학에서 금속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 UTAH대학연구교수로 재직하다가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설립 초기에 중견요원으로 유치되었고, 1967년에는 미국바탈기념연구소의 특수강과 분말야금연구에 참여하였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제조야금연구실장겸 금속공학연구부장으로 1968년에서 1976년까지 재직하는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을 두루 섭렵하였으며, 나머지 모든 시간을 밤늦게 까지 연구실에서만 보내며 분말야금, 특수강, 주물, 방위산업 등 폭넓은 연구사업의 추진에 온통 몰두하였다.

천박사님은 연구추진방식으로 자유분방한 미국식을 추구하면서도 일본 가고시마 제7고보(1946년졸업) 시절 이미 몸에 밴 엄격한 규율을 평생 견지하였으며 스포츠형 두발에 단정한 몸가짐은 주위에 냉엄한 인상을 남기었으나 사실은 펍 다정 다감한 분이였다.

분말야금연구에서 분산강화형Nickel합금제조, 비철금속분말제조, 오일레스베어링제조 연구 등 여러가지 실험실적 연구로 초기의 국내기술기반을 다지는 한편 분무방식에 의한 청동분말제조공장을 건설하게 하여(한국기술진흥<주> 주도로) 한



千炳斗 박사

국아토마이저(현 한국비철분말공업<주>)를 설립하고 오일레스베어링용 원료분말의 국산화를 달성하게 하였다.

주물연구에서는 구상흑연주철제조, 스테인레스강주강벨브 국산화 등 여러가지 연구를 하였고, 자경성주형재료개발연구에서 고유의 특허를 획득하였다. 국내주물기술의 본격적인 발전을 위하여 국내업계의 요청과 서독의 지원을 받아 한국과학기술연구소내에 주물기술센터(현 한국기계연구소 주물공학부)를 구성하는 산파역도 담당하였다.

1969년부터 두해동안 한국특수금속공업<주>(현 국제특수금속<주>)의 자동차베어링공장기술도입과 국산화개발에 관계하여 유능한 기술개발단을 조직운영하면서 경제적 기술도입방안수립과 실질적인 기술개발 및 기술경영지도를 효과적으로 도모하였다.

특수강분야에서는 국내전망조사, 한립특수강육성방안조사등 조사연구를 담당한 후 정부민간공동추진의 한국종합특수강<주>(현 삼미중

합특수강<주>)발족에 적극참여하여 공장이전과 신규공장건설운영관계의 기술운역을 수행하였고 경제적인 특수강 국산화방안을 수립 실천하였다.

방위산업의 초기정책집안에 참여하여 각종군용장비의 국산화 연구 사업을 주도하였고 비상시의 특수강소재 수급모델을 수립하였다. 또한 실용무기를 개량하여 시제를 제조하는 연구를 시도하는등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초기연구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1976년에는 그동안의 험악한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부소장에 승진하였으며 곧이어 국민훈장동백장을 수여받았다. 1977년에는 과거 특수강관련 기술경영실적이 높게 평가되어 한국종합특수강<주>부사장으로 약1년간 재임하였으며, 1978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소장으로 복귀하였다.

즉시 “기술자립에의 도전”이란 슬로건하에 장기대형연구과제를 계획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였는데 1980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한국과학원이 통합되면서 그 뜻을 다 펴지 못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소장직을 물러나신 것이 못내 아쉽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소장직퇴진후 신기술개발목표의 작은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였으나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운영에 투혼한 보람을 잃는데 타격을 받은듯 돌연 직장암을 앓으시어 3년여의 투병끝에 1986년 60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殷 光 勇
(韓國과학기술원
금속재료공정연구실장)